

# 광주시 청년기업 절반 1년 이내 폐업

### 2년 이내 폐업 업체 79% ... 업체별 맞춤형 지원 시급

### 고용률 광역시 중 가장 낮아... 청년 역외 유출도 심각

#### 이정현 시의원 지적

광주시의 지원을 받은 청년기업 중 절반 가량은 1년 이내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 청년 고용률은 전국 7대 광역시 중 가장 낮고, 20~39세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비율도 높았다.

광주시의회 이정현(국·광산1) 의원은 20일 광주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연구원의 '청년창업·창직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반 인프라 구축방안' 보고서를 분석해 "광주시의 청

년창업 기업 생존율이 5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25개 청년기업을 지원했는데 이 중 152개가 폐업했다. 폐업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72개 업체가 창업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1년 이상 2년 미만에 폐업한 업체도 48개에 달해 2년 안에 폐업한 업체들이 무려 79%에 달했다. 청년기업 생존율도 시 간이 오래 지날수록 급격히 떨어졌다.

단기 폐업의 원인으로는 자금부족이 39.1%로 가장 많았고 판매부족, 경영노하우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마다 경영상태가 다른데도 여러 업체를 똑같이 지원하는 백화점식 사업지원도 지원 사업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청년창업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원방식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업체별 맞춤형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 실패는 관련 고용률을 떨어뜨리고 청년들이 광주를 외면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이 지역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청년 고용률은 35.0%로 7대 광역시 중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인 42.3%에도 못 미쳤다.

또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2분기 지역 경제동향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2/4분기까지 광주시 인구 2만 1373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 됐고, 이 가운데 20세~39세 청년이 1만3733명으로 전체의 64.25%에 달했다. 별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창업도 여의치 못해 광주를 떠나는 젊은이가 많은 셈이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창업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한 것은 아니며 경험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의 창업 성공 가능성은 더욱 낮다"며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판로개척, 자금 연계 등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사회연대경제 국제협력 확장하자"

### 민형배 광산구청장, UN 'ILGSSE대화' 행사 메시지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자격으로 UN행사에서 한국의 '사회연대경제'를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연대를 희망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19일(현지시각) ILGSSE 요청으로 뉴욕 UN총회 고위급 행사에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축하 영상 화면.

민 구청장은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19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열린 '국제 사회연대경제 지도그룹(이하 'ILGSSE') 대화'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ILGSSE 대화는 제72회 UN총회 고위급 행사로 개최됐다. 주최국은 프랑스다.

민 구청장은 영상에서 "사회연대경제는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가 부른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국제적 범위로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민 구청장은 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시작은 자치와 분권에, 성장 동력은 사회적 금융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티에리 장 마에트, 국제 사회연대경제 포럼 대표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으며 메르세데스 베나스 코스타리카 대통령 영부인, 마누엘라 토메이 ILO 근로조건·평등국장 등 각국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민 구청장의 영상 메시지는 ILGSSE의 공식 참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유럽에 이어 새로운 사회적경제 리더로 부상하는 아시아, 특히 한국의 현황을 소개하고자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민 구청장은 구청 일정상 영상 메시지로 대체했다. 지난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ILGSSE 대화 개막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청렴복구 만들자" 20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북구청 공무원들이 '2017년 청렴의 날' 캠페인을 통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청렴복구' 글귀가 적힌 새싹과 백설기를 나눠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시, 기간제 33명 연말까지 정규직 추가 전환

광주시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 33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에 전환하는 33명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취사, 시설안내 및 해설, 연구원 검사보조 등을 맡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다.

시는 지난 8월 기간제 근로자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전환평가를 거쳐 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된다. 시가 지난 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수립하

고 전환을 추진 중인 용역업체 파견근로자 772명을 포함해 총 805명을 올해 말까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지금까지 공무원(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는 촉탁계약직을 포함해 총 475명으로 시 75명, 도시철도공사 330명, 김대중컨벤션센터 70명이다.

이정신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시가 민선6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공무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 관행을 바로 잡아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 "광주시-산하기관 갑·을 수직관계...관리방식 개선해야"

### 인사 잡음·성추행 잇따라

#### 박춘수 시의원 지적

광주시가 산하기관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춘수(국·남구3) 의원은 20일 광주시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광주시 산하기관이 인사문제를 시작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경우 징계 대상자에게 봉급 감액 없이 수당만 감액하고 이중 정소계약 등으로 큰 실망을 안겨왔다"며 "광주교통문화연수원도 예산낭비·과도한 직원감사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출연금 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 등으로 신분상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공사에 대해서는 "납품 관련 뇌물수수, 직장 내 성희롱, 심각한 수준의

경영평가 결과로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현재 사장조차 선임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 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또 "산하기관을 관리해야 할 광주시청 간부의 산하기관 여직원 성추행 혐의는 인권도시라는 광주의 숨겨진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시의 산하기관 관리가 단순한 갑과 을의 수직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산하기관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는 것은 광주시의 산하기관 관리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며 "지금까지의 단순한 수직적 구조와는 다른 방식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노동이사제 도입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통해 지역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역의 미래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 광주시의회 원내대표 민주 조오섭·국민의당 김민중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신임 시의회 원내대표로 조오섭(북구2) 의원을 선임했다. 대변인은 전진숙(북구4) 의원이 그대로 맡기로 했다.



조오섭 시의원 김민중 시의원

국민의당은 기존 시의회 원내대표였던 김민중(광산4) 의원과 대변인인 심철의(서구1) 의원을 선임했다. 이들 대표단 임기는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때까지다.

광주시의회에서 교섭단체가 등장한 것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체제였던 4대 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무렵인

2004년 이후 12년 만이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더민주 12명, 국민의당 9명, 민중연합당 1명으로 구성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3회 마한문화축제**  
**9. 22.[금] ▶ 9. 24.[일]**  
**국립나주박물관 일원**  
 주최 : 나주시  
 주관 : 마한문화축제추진위원회